

24년 7월 목회일정

7일(주일)	임시제직회
14일(주일)	특강 :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
21일(주일)	성찬가족심방
28일(주일)	초빙설교(박하림강도사/칼빈대학원-교의학)
3-11월	신앙고백반 교육
11일(목)	총회 통일대비위원예비모임(제2영도교회당)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피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오후예배** / 이번 주일오후에 하기로 한 문화주일 특강은 최 목사의 사정으로 7월 2주로 연기하겠습니다.
- 신앙고백반교육** / 입교반(김성재 이은수)
- 분기특별헌금** / 오늘 2/4분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임시제직회** / 오늘 모든 순서 후에 있습니다.(2층 교육관 1호)
연합당회(장로-집사)와 재정부(배성은-구성본)가 모입니다.
- 당회** / 다음 주일 모든 순서 후에 있습니다.(3층 당회실)
-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7월 예배봉사자 /교회소식-김영민 봉헌-구성본 안내-김학희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기도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학교	금요독서회	20:00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6월	7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김용대	구성본
안 내	최하연	김학희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성연합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06.30.(제28-26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개회

- * 예배에로의부름 ↑ 시128:1-2(교송)
인도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회 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 * 축복의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경배찬송 ↑ 시편106편(1-3)

죄의고백

- * 십계명봉독 ↓ 출20장(전계명/봉독)
- * 죄의공적고백 ↑ 제10형
-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 감사찬송 ↑ 찬송가250장(1-2)

말씀봉사

-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 성경봉독 ↓ 미 7:14-20
-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85편
- 설교 ↓ 설교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 세례식 ↑ 필요시 시행
-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30장(1-2) 구제헌금 분병 분잔
-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가255장

폐회

-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 회			
* 예배예로의부름 ↑		시134:1-2(교송)	
인도자: 보라 밤에 여호와와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와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회 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 축 복 의 인 사 ↓		벧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 배 찬 송 ↑		찬송가 2장	
신앙고백			
* 신 앙 고 백 ↓		니케아신경	
* 감 사 찬 송 ↑		찬송22장(2a-2b)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창10:31-11:9, 행2:5-13	
교 리 문 답 교 독 ↓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가219장	
설 교 ↓		설교자	
난 곳 방언으로 전파되는 복음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 구제헌금 분병 분잔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37장(1a-2b)	
폐 회			
* 강 복 선 언 ↓		설교자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에스라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샬]		
인도 : 최성림 목사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목, 10:30)		
* 울산(화, 19:30)		
인도 : 양주동 목사		
* 감해(수, 19시)		
* 특별(시간지역협의)		
이야기성경		
구 신	47.	사사 기드온
	48.	삼손과 수수께끼
	31.	마리아의 아주 귀한 향유병
주간성경읽기		
주일	민 1-2	눅2:21-52
월	민 3-4	눅 3
화	민 5-6	눅4:1-30
수	민 7-8	눅4:31-44
목	민9-11	눅5:1-26
금	민12-14	눅5:27-39
토	민15-17	눅6:1-19

주일설교를 기억하며(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1. 언약백성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을 지킬 수 있기를	
2.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구원이야기를 늘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3.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직분자들과 봉사를 위하여	
1. 직분자들의 섬김이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 온 성도가 함께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2. 직분자들이 맡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 주님의 성전된 교회의 연합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도록	
3.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자원함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도록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1. 김해개혁장로교회와의 연합모임이 잘 이루어져 온전한 교회일치와 연합의 좋은 모델이 되도록	
2. 부산중부노회와 동래시찰에 속한 교회들이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가게	
3.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꾀방하는 가시와 엉겅퀴같은 악인들의 궂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	
1. 무너져가는 성질서가 교회와 복음을 통해, 또 성도들의 바른 성문화를 통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2. 성경적세계관 역사관을 통해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전쟁과 무고한 자들의 피해가 많아지지 않게	
3.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생명수말씀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모든 성도는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4)	
전에 쓴 글	
<p>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은 에덴교회의 왕(동산을 다 스리는)이요, 제사장(에덴동산자체가 거룩한 산)이요, 어린 선지자(아담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창2:16,17]을 설교했던 자)였습니다.(웨신 제4장2항)</p> <p>그러나 왕인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뱀(창1:26-28/2:19)이 여자에게 와서 여자를 꼬드길 때에 아담이 어린 선지자로서 가르쳤던 내용을 여자가 알았지만(창 3:2,3)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창 3:6a)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어린 선지자 역시, 함께 타락한 성도(여자)의 꾀임에 넘어짐으로 온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소고리문답 13-15문)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 번째 교회(거룩한 성전)에서 사람을 내쫓으신 것입니다.</p> <p>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창 5장)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족장(이삭, 야곱)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창 5:21-24, 창 14-16/ 창 6:8-22/ 창20:7)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심입니다.</p>	
[모든 직분자는 신학자여야 한다.]	
<p>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성막과 성전의 모양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소 안에 언약궤에는 모세의 두 돌판(선지자직)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왕직), 그리고 만나 한 오멜의 항아리(제사장직)이 있었는데 이는 성막이 삼위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중앙에 언약궤(선지자직)와 성전입구의 두 기둥 야긴(제사장직)과 보아스(왕직)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p> <p>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는 이 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에 사람들이 성전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레23:3 ;신6:4-9] 아버지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왕) 거룩하게(제사장) 살아가도록 가르쳐야(설교-선지자) 했습니다.(욥 1:4,5)</p> <p>신약교회 역시 교회 안에 구약교회와 연관된 세 직분이 있습니다.</p> <p>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소고리문답23-26문)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p> <p>이때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 28:18-20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제사장직)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선지자직) 지키게(왕직)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마 28:16)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계속)</p>	

인생들은 자신들이 신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집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 이는 창 3장의 에덴동산에서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유혹했던 역사를 기억나게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땅 끝까지 흠어지라고 하더냐? 결코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힘을 모아 하늘의 땅을 탑을 만들어 하늘에 이르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여자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어 죄악된 몸으로 영생하는 것을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바벨에 성읍과 탑을 쌓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어시고, 그 도시를 건설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방언을 주신 것은 분명 바벨탑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인하여 온 인류에게 죄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고,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분명 온 인류를 흠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심판은 온 인류가 다같이 최종적인 심판으로 달려가려는 죄악을 막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3. “난 곳 방언으로 새 언약의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

인생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 바벨을 쌓았을 때에 진노의 불로 인간의 혀를 태우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주셔서 무리를 땅의 사방으로 흠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 하셨을 때 불의 혀같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의 혀같은 방언으로, 당신이 온 땅에 흠으셨던 천하만민을 부르십니다. 바벨의 역사를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은 것이 성도들 위에 임하였는데,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4,6), 천하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행2:8)하고 놀랍니다. 말하는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는 다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시대의 방언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을 흠어시키고, 죄악을 억제하여 교회의 타락을 늦추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제 이 방언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흠어놓으실 뿐 아니라 그 난 곳 방언으로 선포된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의 구원을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난 곳 방언으로’ 들어야 합니다.(행21:40-22:2, 20절 이하) 이는 유대인들도 이방인같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어짐을 면하기 위해 만들었던 바벨을 방언으로 허무셨지만,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신 오순절 성령님을 통하여 각 지방과 족속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파함으로 새 언약의 교회를 모으십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6월30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55장
성경봉독	미 7:14-20
설 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인애를 베푸십니다.”

“인애”란, 언약을 맺은 상대가 언약하고 흠이 많다 하더라도 변함 없이 사랑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백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애를 베푸십니다.

1.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

미가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멜, 바산, 길르앗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목양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되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다면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은 입을 막고, 귀가 먹먹하게 될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옛 뱀 마귀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흠을 먹고 땅을 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구멍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구멍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간구합니다. 언약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시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회복을 소망하고 있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 과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일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입니다. 언약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언약을 모르면 믿을 것도 없고 소망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조리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인애 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일을 알고 믿으려 합니다.

2.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라고 미가 선지자는 의문문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는 미가의 이름 뜻과도 같습니다. 미가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언약백성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인애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사람도,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인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백성의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언약하신 바를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전부 구원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복될 것을 선지자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이 남은 자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건, 다른 민족이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해주시는 것입니다.

19절은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히 나타납니다. 선지자는 “다시”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돌아오다”라는 뜻인데, 함축적으로 “다시”라고 번역한 듯합니다. 돌아오는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로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실 때에는 하나님을 “그분(3인칭 남성 단수)”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때에는 “당신(2인칭 남성 단수)”이 됩니다. 그분에서 당신으로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하나님은 가까워지지만 “죄”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실 때에는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되실 때에 그 죄는 “그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죄가 저 멀리 던져져서 깊은 바다에 매장을 당합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와 군대를 깊은 바다에 매장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악을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세레”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레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를 물과 함께 매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실을,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주십니다. 곧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설령 언약의 상대자인 언약백성이 부족하여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6월30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219장
성경봉독	행2:5-13, 창10:31-11:9
설 교	난 곳 방언으로 전파되는 복음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방언으로 바벨교회를 홀으신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새 언약의 교회를 모으셨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주시면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다른 언어, 곧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역사입니다.

1. “방언을 언제 주셨는가?”

창10-11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나누십니다. 이 장면은 행 2장의 방언이 천하각국의 언어로 나타난 역사와 유사합니다.

1) 어원론적 일치 : 히브리어(לשון)나 헬라어(γλῶσσαι)는 둘 다 원어로 ‘사람이나 짐승의 ‘입, 혀’, 혀로 표현하는 ‘말’,또는 ‘언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출 4:10, 신28:49, 욥12:11, 렘 5:15; 행2:3,4,26, 약3:5)

2) 나라와 족속과 연관 : 행 2장에 ‘천하각국에서 온 유대인들’(5)은 창 10장의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흠어지게 하실 때에 흠어진 지역에서 난 자들입니다.(5-야벳의 자손들;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와 로마, 그레데’ 11-함의 자손들; ‘바대와 메대, 엘림인과 메소포타미아, 20-가나안자손들 ;유대, 30-셈의 후손들;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아라비아)

3) 방언을 하게 되는 배경 : 하나님께서는 홍수심판 후에도 인생이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창9:7) 거역하고, 구음이 하나인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죄악된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연합을 막으시기 위하여 방언을 주셨습니다(창11:1-9). 마찬가지로 신약의 오순절 때에 당대 하나님의 교회였던 예루살렘과 유대가 제사장나라로서의 명령을 준행하기는 커녕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고(마21:33-45) 주의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할 때에 방언을 통하여 그 죄악된 공격을 막으신 것입니다.(행2:7-13,37)

2. “방언으로 옛 언약의 교회를 홀으시는 하나님”

언어가 혼잡케 되는 바벨탑사건은 셈의 자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창10:21-31, 11:10-26; 11:1-9) 셈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창9:7)는 주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시날에서 ‘성과 탑을 쌓고 있던 니므롯과 연합한 일’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창9:25-27)고 언약한 것을 거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그렇게 함께 반역을 꾀한 이유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창11:1)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신의 문)로 부르신 것은 언어유희로 바벨을 짓겠다고 외치는 인생들을 조롱하시며 그 만든 문을 ‘바알(혼잡)’이 되게 한 것입니다.